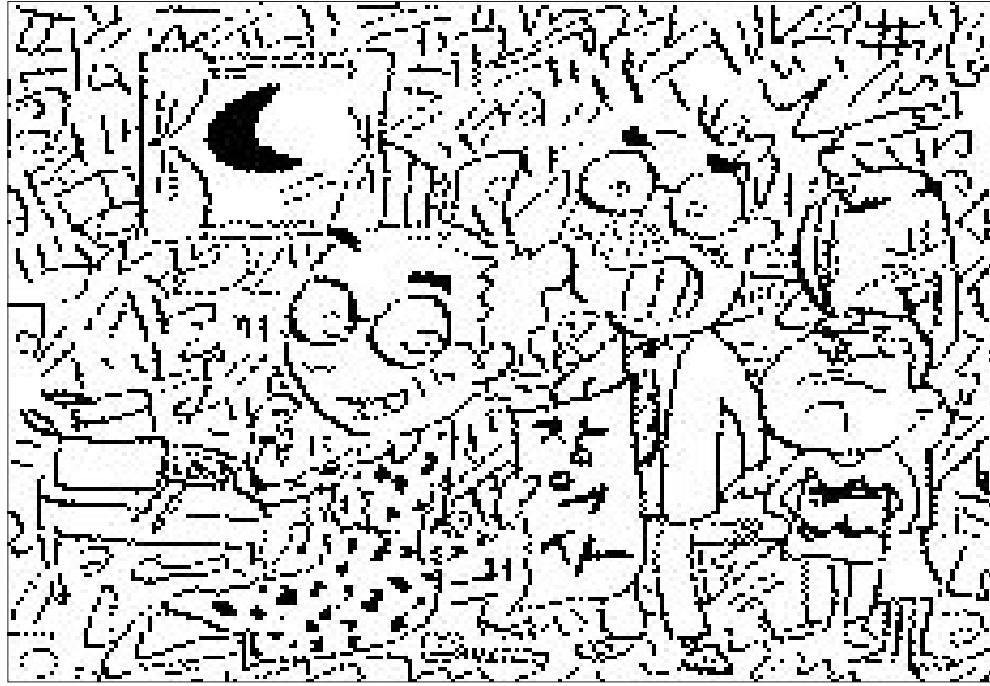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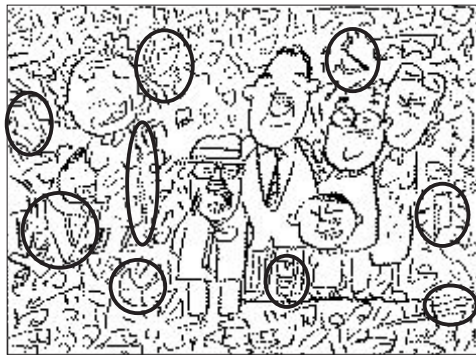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12>



찾아(보)세(으) 고추, 다리미, 열대어, 아이스크림, 만년필, 칫솔, 가지, 우유병, 슬리퍼

집안에서 기 펴고 사는 법

“집안에서 기 펴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은 남편이 당당한 태도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지난주 정답

뚝, 펜촉, 음표, 열대어, 셔플, 사람 옆 얼굴, 은행인, 바늘, 왕관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40년전 권희로씨, 日 민족차별에 인질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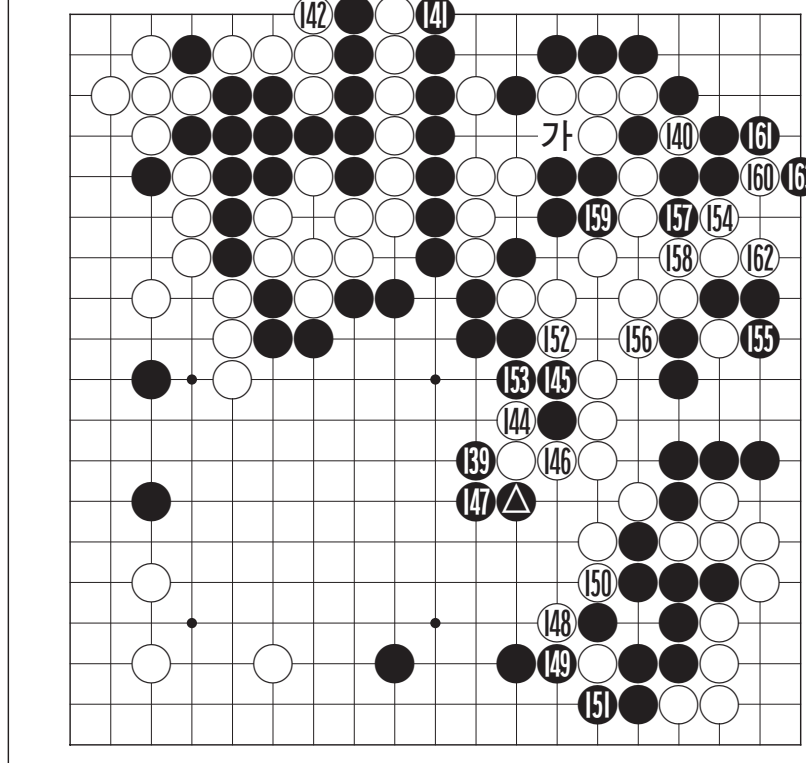
오늘(2008년 2월20일)은 '김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다. 1968년 2월 20일, 가네오 카 아스히로라고 불리던 재일 한국인 권희로(일명 김희로)가 야쿠자 2명을 라이플로 사살하고 인근 운전여관에서 투숙객 13명을 인질로 삼아 일본 정부와 싸움을 벌였다.



1968년 2월24일, 대전 뒷세면이 일본 경찰에 붙잡힌 권희로 씨가 연행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건은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 있는 술집 '클럽 링크스' 야쿠자 조직의 행동대장 소가 유키오가 빌려도 많은 돈을 갚으며 권씨를 모욕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였다. 그를 격분시킨 것은 "조선진... 이 더러운 돼지새끼, 니가 왜 당해야 하는지 알아?"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40년간 응축된 그의 응어리에 불을 질렀고, 결국 야쿠자들에게 라이플을 겨누는 도화선이 되었다.

발한 것이다. 5일 뒤 2월24일 NHK에서는 "민족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조선진 빠가야로(한국인 바보)'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다카마쓰 현 경찰서장의 사과 방송이 세차례 흘러나왔다. 권씨의 분노는 그제서야 꺾렸다. 88시간의 인질극 소동 끝에 체포된 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31년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7일 가석방되어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광주기우회 대항전 빠틈없는 대마사냥 9보(139~163)

전보에서 흑 ▲로 봉쇄를 당한 순간 백 대마의 살길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관 5단 대마를 손때고 좌파위를 지킨 것은 살 자신이 있었다 보다는 '대마 불사라는 기대와 또 집으로 말리면 끝장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둑소식

김은선-이하진 주작왕 격돌 이하진·김은선 3단이 제5회 전자랜드배 주작왕전 결승에서 맞붙는다. 이하진은 지난 18일 서울시 바둑TV 스투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4강에서 박 지연 초단을 맞아 262수만에 백불계로 이겼고, 김은선도 같은날 이슬아 초단을 301수만에 백8집반승으로 꺾었다.

리빙 스펀스

옷에 뭐가 묻었을 때 세탁법

- ▶볼펜·잉크·물감이 묻었을때-칫솔에 알콜을 묻혀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되죠. 그냥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희미한 자국이 남기도 하나 반드시 알콜로 자국을 지워야 합니다. ▶향수가 얼룩졌을 때-흰옷을 입고 아무 생각없이 향수를 뿌렸다가 얼룩이 생기기 십상. 얼룩은 세탁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향수 얼룩은 거드랑이 부위에 가장 잘 생기는데 헹굴때 과산화수소를 묻혀 얼룩 부분의 양면에 대고 돌려주면 얼룩이 없어집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14일 庚寅)

- 子 36년생 큰 고봉을 얻는다. 48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지 않을 수 없다. 60년생 부친을 찾아보고 문안인사를 드리라. 72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펴보고 가아 한다. 84년생 득배하는 실이 크며 시비 소송가 발생 수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04, 14
丑 37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49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하라. 61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73년생 충분한 자기 사비를 확보해야 함. 85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됨. 행운의 숫자:05, 13
寅 38년생 새로운 희망의 실씨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0년생 숙련숙련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2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음식되는 경사가 있다. 74년생 신중한 간 인목으로 보라. 행운의 숫자:09, 10
卯 39년생 될 듯 될 듯함 구상만 있고 남성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1년생 중간간의 음모를 살펴봐라. 63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짐작심을 잃지 마라. 75년생 흑담의 길에 오르내려도 관계지 마라. 행운의 숫자:18, 20
辰 40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라. 6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조를 준수하고 만족하라. 76년생 희망의 실씨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06, 15
巳 41년생 적시에 마무리 작업으로 의향을 줄이고 실리 권으로 집중하라. 53년생 계수는 바리치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5년생 생기가 발산되고 옛종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77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07, 17
午 42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급조급하다. 54년생 모든 의향을 살리위로 바꿔라. 66년생 과욕은 금품이고 근친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78년생 독신자는 의욕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27, 31
未 43년생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5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7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79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31, 38
申 44년생 주변의 시구가 줄어들 수 있다. 56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리으나 서둘러야 할 일이다. 68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80년생 시기상조니 마지막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02, 04
酉 45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57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니 흥사는 없다. 69년생 시기상조이니 숨통이 터진 기분을 다. 81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11, 22
戌 46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58년생 희망적 실씨가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튼 수 있다. 82년생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오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32, 43
亥 47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9년생 절 때 신규 사업에 참여치 마라 큰 손해가 있다. 71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83년생 산뜻한 새 마음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다. 행운의 숫자:43, 4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00>

You can talk to her tomorrow. 내일 그 애한테 얘기해도 되잖아. A: Can I call Mary? B: No, it's time to go to bed. A: Please. B: No, you can talk to her tomorrow. ... * TV를 꺼야 할 시간이다. = It's time to turn off the TV. * 점심을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 It's time to get some lunch. *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다. = It's time to get some new clothes

오하오우 니혼고 <1100>

どうやって、まけばいいの? 어떻게 뿌리면 되는 거야? A:今日は節分(せつぶん)だから、豆(まめ)まきますんですよ。 B: そうだねえ。暗くなってから、炒(い)った大豆をまくんだけど、そのあと、自分の年の数だけ、拾(ひろ)って食べるんだ。 ... 豆(まめ)まきます: 콩을 뿌리다 炒(いる): 볶다 拾(ひろ)う: 줍다

니하오 쑹구워 <77>

你家有几口人? 가족이 몇 명이에요? A: 你家有几口人? Ni jia you yi kou ren? B: 我家有五口人。 wo jia you wu kou ren. A: 都有谁? Dou you shui? B: 爸爸,妈妈,哥哥,弟弟和我。 Baba, mama, gege, didi he wo. ... 兄: 형 兄: [ji] 姊: 자매를 세는 양자 姐: [koe] 兄: [shou]

한자 이야기 <687>

袈裟(가사) 가사가, 가사사 가사(袈裟)는 범어(梵語)로 탁발(鬚色) 또는 염색(染色)이라는 뜻의 '카사야(Kasaya)'를 음역한 것이다. ... * 가사 색깔이 붉은 이유는 부처님이 인행(忍行)할 때 온 몸을 칼로 난자랑한 것을 본 따서 누더기 조각 천을 모아 꿰매 피의 색인 홍색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즉 인욕(忍辱)의 상징인 것이다.